

“동서축 철도망은 국가균형발전·수도권 분산 출발점”

달빛 내륙철도 조기건설 위한 국회포럼 경유 지자체 대부분이 낙후지역 발전 기회 확보·성장 잠재력 높여 예타, 화합비용 등 반영 노력 필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달빛 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은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 건설의 예비타당성 면제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규사업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이 수도권 및 중부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고, 남북경제권을 형성해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박사는 이날 발제를 통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노력에도 수도권의 인구와 경제활동 집중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수도권 집중 구조 분산을 위해 지역발전을 통한 신경제권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광주와 전남·전북, 대구와 경남·경북을 잇는 달빛 내륙철도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

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박사는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동남권과 대경권, 호남권을 연결한 '남부 경제권' 활성화를 제시했다. 행정구역을 초월해 다양한 분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달빛 내륙철도 경유지인 지자체 대부분이 지역 낙후도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이들 지역의 발전기회 확보 및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박사는 또 "광주와 대구의 산업연계 구축을 통해 상호보완적 경쟁적 상승 도모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간 철도 분담률도 호남과 영남 간에는 매우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을 기점으로 대전(56.1%), 대구(70.8%), 울산(83.6%), 부산(89.5%) 등으로 높은 반면, 광주와 대구, 울산 간은 0%, 광주에서 부산과 창원간은 0.4~0.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남북 위주의 철도망 구축이 이뤄져 영·호남의 동서축 철도 서비스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 박사는 "국가 철도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서축을 개발하면 기존 철도망과의 연계로 철도 이용객은 증가할 수 있다"면서 "국토공간 측면에서도 동서축 개발은 국토개발을 이룰 수 있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 더불어민주당 윤영덕·이병훈·송갑석·양항자·조오섭·이용민·민형배 국회의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는 좋은 방향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박사는 "달빛내륙철도사업은 그동안 1~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검토사업에 그쳤지만, 내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는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추진 전략도 소개했다. 우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방향성에 맞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서 교통망 개선사업'이나 '지역연계 산업발전형 사업' 등의 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경제성 보다는 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이 부각시키고, 교통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양극화를 제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준 철도정

책연구팀장은 "철도의 파급효과는 크다. 철도역은 도시 성장 동력이 됐다"면서 "단순히 이동 수단으로서의 철도 유지가 아니라 도시가 철도를 품었을 때 도시의 미래전략이나 구상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철도 유지의 사전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진장원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 교수는 "철도사업 예비타당성은 대체적으로 유발수요, 잠재수요 등도 평가항목으로 반영되긴 하지만, 달빛내륙철도는 '영·호남 화합'이라는 점에서 동서 공동체 회복 등의 화합 비용 등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영호남 지역민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단순히 물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 철도를 놓겠다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사업이 아니다"면서 "사람과 물자의 왕래가 어려워 지역 간 편견과 갈등의 벽이 높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진정한 상생과 화합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 지역민들의 바람이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모색해야 하는 지금, 영호남을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남부 내륙 신경제권 창출과 그간 소홀했던 동서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서는 필수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문 대통령 "코로나 치료제 이르면 연말 선보일 것"

인천 송도 바이오산업 현장 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K 바이오'의 잠재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진척을 보이고 있고, 빠른 열매를 맺기 위해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 연세대 송도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바이오산업 현장방문 행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바이오산업 육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 바이오산업은 코로나에 맞서 인류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 많은 국가로부터 진단 키트를 공급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며 "이제 바이오 의약품 생산기지를 넘어 바이오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 육성전략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4만

7000여명의 바이오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며 "연구개발 예산도 올해 1조3000억원에서 내년 1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소개했다. 또 "연 1조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돕겠다"며 "메가펀드를 활용해 지원을 늘리고 빅데이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산업에 힘을 쏟을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미래산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신형 국가가 바이오 강국이 되기 어렵다는 통념을 깨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철웅성 같은 바이오시장을 뚫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 가장 타격을 받은 분야로 예상됐지만 이제 한국은 바이오산업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업들의 투자에 대해서도 "2023년까지 40개 기업이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90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반세기 지나도 바뀔 줄 모르는 노동환경



김은영의 '그림 생각'

(334) 천근만근

전태일 분신 50주기를 맞아 최근 역사를 소환하는 뉴스를 자주 접한다. 젊은 날 '전태일 평전'을 읽으면서 차비를 아껴 어린 '시다'들에게 풀밭을 건넌 아름다운 청년의 송고한 이터심에 마음 절절했던 기억이 오래 남아있다. 그 어린 나이에 자신도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서 어린 '시다'들을 동생처럼 안쓰럽게 생각했던 사람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야말로 전태일 정신의 본령이라는 생각이 든다.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법을 지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몸을 불태운 지반세가 지나서도 여전히 노동자들의 현실은 고단하고 어쩌면 더욱 위태롭기까지 하다.

박은태 작가(1961~)의 '철골-비계'

(2020년 작)은 전태일 열사가 그리도 간절히 원했던 안전해야 할 노동현장이 무색하게 허공에서 비계를 타고 오르내리며 작업하는 아찔한 모습을 그린 작품인 것 같다. 현재 서울 인디프레스 갤러리에서 '천근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전시 중인 작가는 의도적으로 전시 일정을 맞춘 것은 아니겠지만 웬지 전태일 열사 추모 50주기가 이 즈음이라 더욱 주목하게 한다.

작가는 지난 2018년부터 공사현장을 배경으로 한 철골 시리즈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 이 작품은 난지도에서 산악인 기념관 건축현장을 사진 찍어두었던 걸 그린 것이다. 벽면과 하늘을 그리면서 붓 자욱 터치를 의도적으로 칸마다 채워 넣고 공간을 평면화 시켰다. 작업하는 노동자는 약보의 음표처럼, 비계는 오선지처럼 표현했는데 그 이유를 작가는 힘든 공사장이지만 "너무 힘들지 않게..."하고 싶어서라고 밝힌다.

강진에서 태어나 목포에서 공고를 졸업하고 성남 산업공장을 7년간 다녔던 작가는 취미로 그림을 그리다가 늦깎이로 홍익대 미술에 진학한다. 이후 만민미술 노동미술위원회에서 사회참여적 민중미술운동 활동을 맹렬하게 펼쳐왔



박은태 작 '철골-비계'

다. 특히 공장 노동자로 살았던 화가 자신의 경험은 천근만근의 무게로 짓눌리는 건설현장의 고된 노동과정을 노동하듯이 한 땀 한 땀 그림으로 지어내고 있는 것 같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쉬어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없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